

2026년 3월 1일

사순 제2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신앙의 선조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당신의 자애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살펴주시는 주님께서 거룩히 변모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며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신앙의 힘으로 짊어지고, 주님께서 겪으신 수난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4절

화답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1장 8절-10절

복음 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1절-9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340번 ‘봉헌’

영성체 성가 :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곤 합니다.
세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여러 직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내심 만족하며 신앙에 대해 자만심을 가질 때
하느님께서서는 큰 시련이나 어려움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환하게 빛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을 주님 말씀에 힘을 얻을 때
주님 안에서의 평화와 행복을 약속하심이라 여겨집니다.
예상할 수도 없었던 부르심에 응답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나선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처럼
더 가벼운 마음과 더 깊은 신앙과 더 큰 희망으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72번 ‘타보르산의 예수’

2026년 3월 8일 주일

사순 제3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생명의 샘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막의 한가운데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물을 내려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내리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의 놀라운 업적을 전할 것을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21번 '한 많은 슬픔에'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7장 3절-7절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장 1절-2절.5절-8절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5절-42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 성가 :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이 주신 물이 내 안에서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의 샘이 되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을 누리기를 청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우리도 주님께 물을 청합시다.
생명과 행복의 물을 청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향

파견성가 : 117번 ‘지극한 근심에’

2026년 3월 15일 주일

사순 제4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이익, 나의 선입관들을 버리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며 이 전례 중에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입당성가 : 515번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 6절-7절. 10절-13절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장 8절-14절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1절-41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 성가 :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영성체 후 묵상

신앙의 소경이 있습니다.

사물을 분간하고 글도 알지만,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진짜 소경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태생 소경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태생 소경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죄를 부정하고

그릇된 선입견과 좁은 소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기에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소경이면서 소경인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성찰하며

주님께 겸손하게 청합시다.

‘주님, 저희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2026년 3월 22일 주일

사순 제5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만납니다. 일상에서부터 작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새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순 시기의 은총이 내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죽음을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본기도

+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장 12절-14절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8절-11절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1절-45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성가 : 498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세상에 태어나고 이름이 지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두는 벽이 허물어진 것도,

내가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느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벽을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에 살았던 사람임을 일깨우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0번 ‘성 요셉 찬양하세’

2026년 3월 29일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오늘 수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하며 이 전례에 임합니다.

입당성가 : 10번 '주를 찬미해'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제 1 독서 : 이사야서 50장 4절-7절

화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 독서 : 필리피서 2장 6절-11절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강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의 샘’ 참조

예물준비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영성체 후 묵상

올리브 가지를 들고 예수를 환호하는 군중들은
천만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없애줄 구세주,

평안과 부귀를 안겨줄 구세주,

기적을 보여줄 구세주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당신을 알아보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구원자,

선인에게든 악인에게든 사랑을 전하려 한 구원자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거룩한 시간을 바쳐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8번 ‘골고타 언덕’